

몸과 마음이 빛을 일으켜 환히 사무치다

원통문에 든 25성자 '수능엄경'에서 만나다

<4> 7대원통(七大圓通)-1

오주슬마

저는 언제나 먼저 옛 일을 생각해 보습니 다. 오랜 겁 전에 저의 성품은 몹시 음욕을 탐내었습니다. 그때 세상에 나오신 공왕 부처님께서 '음욕이 많은 사람은 맹렬한 불덩어리'라고 설하시면서, 저에게 '온갖 뼈와 사지의 차고 더운 기운들을 두루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을 따라 행하였더니, 신비한 광명이 안으로 영겨서 음욕을 탐하는 마음이 변하여 지혜의 불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모든 부처님께서 저를 화두(火頭)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화광삼매의 힘으로 아라한을 성취하고, 마음에 큰 소원을 세워서 모든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마다 역사(力士)로 변하여 직접 마군의 원한을 항복시켰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달한 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에는 몸과 마음의 따뜻한 촉감을 자세히 관찰하여, 결립 없이 유통시켜 온갖 번뇌를 다 소멸하고, 보배로운 큰 불꽃을 일으켜서 더없이 높은 깨달음에 오르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烏芻瑟摩(於如來前) (合掌)頂禮佛(之雙)足而白佛言 我常先憶久遠劫前 性多貪欲 有佛出世名曰空王 說多 夙成猛火聚 教我遍觀 百骸四肢 諸冷(冷)暖氣 神光內凝 化多 瓦成智慧火 從是諸佛 皆呼召我 名為火頭 我以火光 三昧力故 成阿羅漢 心發大願 諸佛成道 我為力士 親伏魔怨 佛圓通我以諦觀 身心暖觸 無礙流通 諸漏既銷 生大寶焰 登無上覺 斯為第一

지지도 보살

지지도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죄었다. 持地菩薩 即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는 지난 먼 옛날의 일을 생각해 보니, 보광여래께서 세상에 나오셨을 때 비구였 습니다. 저는 항상 일체 중요한 길과 나루의 입구가 밭과 땅이 좁고 험하여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레와 말들을 방해하고 훼손하는 것을 보고, 그 곳을 끌고루 메우기도 하고, 다리를 세우기도 하고, 모래와 흙을 지어 나르기도 하였습니 다. 이렇게 부지런히 노력하기를 한량없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까지 계속하였사오는데, 때로는 어떤 중생이 사람과 수레가 붓비는 곳에

서 집 나르기를 원하면, 제가 먼저 짊어지고 가서 목적지에 물건을 내려놓고 바로 떠나서 값을 받지 않았습니 다.

비사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흥년이 들어 굶주림이 심했는데, 저는 짐꾼이 되어 밀고 가까운 곳을 못지 않고 오직 한 판만 받고 남았습니 다. 간혹 수레를 끄는 소가 구렁에 빠졌을 때에는 저의 신비한 힘으로 바퀴를 밀어 올려 고통을 없애주기도 하였습니 다. 그때 국왕이 공양을 마련하여 부처님을 청했는데, 저는 부처님께서 잘 지나가실 수 있도록 땅을 평탄하게 골라놓고 기다렸습니 다.

비사부 부처님께서 지나시는 길에 저의 이마를 만지시며 '마땅히 마음의 땅을 잘 고르다면 세상의 땅은 일체 다 골라지리라'라 말씀하셨습니 다. 저는 곧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 다. 따라서 몸의 미세한 먼지와 세계의 미세한 먼지가 평등하여 차별이 없고, 미세한 먼지와 자성은 서로 부딪치지 않으며, 병기까지도 저촉되는 일이 없음을 알고, 저는 법의 성품에서 무생법인을 깨달아 아라한을 성취하였습니 다.

지금은 마음을 돌려 보살자리에 들어가서, 여러 여래께서 설하신 묘연과 부처님 지견의 경지를 듣고 제가 먼저 증명하여 상수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에는 몸과 세계의 두 미세한 먼지는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본 여래자이며, 허망하게 티끌이 일어났음을 자세히 관찰하여, 티끌을 소멸하고 지혜를 원만하게 갖춰서 더없이 높은 도를 이루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我念往昔 普光如來 出現於世 我為此丘 常於一切 要路津 [淨]口 [田]山[地]險隘 有不如法 妨損車馬 我皆平(平)或作橋梁 或負沙土 如是勤苦 經無量佛 出現於世 或有業生 於關 處 要人擊物 我先為擊 至其所詣 放物即行 不取其直 毘舍浮佛 現在世時 世(歲)多饑荒 我為負人 無間遠 近 唯取一錢 或有 車牛 被於泥濘 我有神力 拔其推輪 拔其苦惱 時國大王 筵(延)佛設齋 我於爾時 平地侍佛 毘舍如來 摩頂誦我 當平 心地 則世界地 一切皆平 我即心開 見身微塵 與造世界 所有 微塵 等無差別 微塵自性 不相觸摩 乃至 刀兵 亦無所觸 我於 法性 悟無生忍 成阿羅漢 心(心)入 菩薩

位中間諸如來 妙妙 蓮華 佛知見地 我先證明 而為首 佛圓通 我以諦觀 身界 二塵 等無差別 本如來藏 虛妄發露 塵銷 智圓 成無上道 斯為 第一 월광 동자 월광 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죄었다. 月光童子 即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我念往昔 普光如來 出現於世 我為此丘 常於一切 要路津 [淨]口 [田]山[地]險隘 有不如法 妨損車馬 我皆平(平)或作橋梁 或負沙土 如是勤苦 經無量佛 出現於世 或有業生 於關 處 要人擊物 我先為擊 至其所詣 放物即行 不取其直 毘舍浮佛 現在世時 世(歲)多饑荒 我為負人 無間遠 近 唯取一錢 或有 車牛 被於泥濘 我有神力 拔其推輪 拔其苦惱 時國大王 筵(延)佛設齋 我於爾時 平地侍佛 毘舍如來 摩頂誦我 當平 心地 則世界地 一切皆平 我即心開 見身微塵 與造世界 所有 微塵 等無差別 微塵自性 不相觸摩 乃至 刀兵 亦無所觸 我於 法性 悟無生忍 成阿羅漢 心(心)入 菩薩



그림·최주현

오주슬마 '촉감관찰 번뇌소멸' 지지도보살 '차별없는 지혜구족'

位中間諸如來 妙妙 蓮華 佛知見地 我先證明 而為首 佛圓通 我以諦觀 身界 二塵 等無差別 本如來藏 虛妄發露 塵銷 智圓 成無上道 斯為 第一

월광 동자

월광 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죄었다. 月光童子 即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는 지난 옛 갠지스 강의 모래와 같은 겹의 일을 생각해 보니, 그때 수천수천이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모든 보살들에게 '물의 정기를 수습하여 삼가져 들어 가서 몸 안에 있는 물의 성품이 불과 흙 등 다른 성품과 서로 부딪치지 않음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 다. 처음 콧물과 침으로부터 진액(津液), 정

월광동자 '무생법인 보리원만' 유리광범왕자 '바람의 힘 관찰삼매'

액(精液)과 피와 대변과 소변에 이르기까지, 몸속을 빙빙 도는 물의 종류는 다르나 그 근본 성품은 한 가지임을 관찰하였습니 다. 이치를 끝까지 추궁하면, 몸속의 물과 세계 밖 부당왕찰의 온갖 향수해와 함께 평등하여 차별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 이 관(觀)을 성취했을 때는 단지 물만 보는 경계일 뿐, 아직 몸이 없는 경지에는 들지 못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비구로서 방안에 편안히 앉아 선정에 들었습니다. 저의 제자가 창문을 통해서 방안 안을 보다가, 오직 방안에 가득 찬 맑은 물만 보이고, 그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어리고 무지한 동자는 기와조각 하나를 물속에 던져 찰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힐끔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선정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심장이 몹시 아팠는데, 사리불이 몰래 해치는 귀신(違害鬼)을 만난 경우와 같았습니다. 저는 홀로 생각해보았습니 다. '이제

나는 아라한도를 얻고 나서 오래 전부터 병과 인연이 없었는데, 오늘은 웬 일로 별안간 심장이 아픈 것일까? 장차 도에서 물러나 잃어버릴 징조가 아닌가?' 그때 동자가 급히 저에게 달려오더니 앞서 행한 일을 말 하였습니다. 저는 동자에게 일러주었습니 다. '네가 다시 물이 보이면 반드시 문을 열고 물속에 들어가서 기와조각을 제거해야 한다.' 동자는 가르침을 받들어서 저가 선정에 들자, 다시 또 물을 보고 그 속에 뚜렷이 남은 기와조각을 발견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지고 나왔습니 다. 뒤에 제가 선정에서 나오니 몸이 아프기 전과 같았습니 다.

그 뒤로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모시다가, 산해저재룡왕 여래 때에 비로소 몸이 없는 경지를 얻으니, 시방세계의 온갖 향수해와 함께 성품이 진공과 합하여 물도 없고 차별도 없었습니 다. 지금은 여러께서 내려 주신 동진(童眞)이란 이름으로 보살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에는 물의 성품이 한 맛으로 흐르고 통하여 무생법인을 얻고 보리를 원만하게 갖추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유리광범왕자 '바람의 힘 관찰삼매'

我憶往昔 恒河沙劫 有佛出世 名為水天 教誨菩薩 修習水精 入三摩地 觀於身中 水性奪初 從涕唾 如是窮盡 津液精血 大小便利 身中澁(澁)潤 水性一同 見身身中 與世界外 浮幢 王刹 諸香水海 等無差別 我於是時 初成此觀 但見其水 未得 無身 當為此丘 室中安禪 我有弟子 窺(窺)觀室 唯見既水 遍在 屋中 了無所見 童稚無知 取一瓦礫 投於 水內(中) 激水作聲 顧(顧)而去 我出定後 頓覺心痛 如舍利弗 遭違害鬼 我自思惟 今我已得 阿羅漢道 久離病緣 云何今日 忽生心痛 將無退失 爾時童子 捷來我前 說如上事 我則告言 汝更見水 可即開門 入此水中 除去瓦礫 童子奉教 後入定時 還復見水 瓦礫宛然 開門除出 我後出定 身質如初 逢無量佛 如是至於 山海自在 通王如來 方得亡身 與十方界 諸香水海 性合(合)空 二無別 今於如來 得童(童)名 預菩薩會 佛圓通 我以水性 一味流通 得無生忍 圓滿菩提 斯為第一

유리광 범왕자 유리광 범왕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죄었다.

琉璃光法王子 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는 지난 옛 갠지스 강의 모래와 같은 겹의 일을 생각해 보니, 그때 무량성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보살들에게 본각은 원래 모명함을 열어 보이시면서 '이 세계와 중생의 몸은 다 허망한 변연으로 바람의 힘이 굴리는 경계임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공간의 존재를 관찰하고, 시간의 흐름을 관찰하고, 신체의 움직이고 멈춤을 관찰하고, 생각의 변화를 관찰해 보니, 이러한 가지가지 움직임은 천차만별이나 그 능동적 본체는 물도 아니고 평등하여 차별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온갖 움직이는 성질은 와도 온 곳이 없고 가도 간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 다. 먼지처럼 많은 시방의 중생들은 하나같이 허망하여 진실하지 않았습니 다. 이와 같이 삼천대천 세계까지도, 한 세계 안에 들어 있는 중생들마다 마치 한 그릇에 담겨 어지럽게 우는 수많은 모기들이 지극히 보잘 것 없는 곳에서 어지럽게 날뛰며 시끄럽게 떠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무생법인을 얻으니, 마음이 활짝 열려서 동방의 부동불국을 보고, 법왕자가 되어 시방의 부처님을 섬기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빛을 일으켜서 결립 없이 환하게 사무쳤습니 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에는 의지함이 없는 바람의 힘을 관찰하여 보리심을 깨닫고 삼마지에 들어가서 시방세계의 부처님과 합하여 하나의 모한 마음을 전하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我憶往昔 經恒沙劫 有佛出世 名無量壽 開示菩薩 本覺妙明 觀此世界 及眾生身 皆是妄緣 風力所轉 我於爾時 觀界安立 觀世動時 觀身動止(像) 觀心動念 諸動無二 等無差別 我時 了覺 此群動性 來無所從 去無所至 十方微塵 剎那衆生 同一 虛妄 如是乃至 三千大千 一世界內 所有衆生 如一器中 貯百 蚊(蚊) 亂鳴 於分寸中 鼓發狂鬧 逢佛未幾 得無生忍 爾時 心開 乃見東方 不動佛國 為法王子 事十方佛 身心發光 洞徹 無礙 佛圓通 我以觀察 風力無依 悟菩提心 入三摩地 合十方佛 傳一妙心 斯為第一

我憶往昔 經恒沙劫 有佛出世 名無量壽 開示菩薩 本覺妙明 觀此世界 及眾生身 皆是妄緣 風力所轉 我於爾時 觀界安立 觀世動時 觀身動止(像) 觀心動念 諸動無二 等無差別 我時 了覺 此群動性 來無所從 去無所至 十方微塵 剎那衆生 同一 虛妄 如是乃至 三千大千 一世界內 所有衆生 如一器中 貯百 蚊(蚊) 亂鳴 於分寸中 鼓發狂鬧 逢佛未幾 得無生忍 爾時 心開 乃見東方 不動佛國 為法王子 事十方佛 身心發光 洞徹 無礙 佛圓通 我以觀察 風力無依 悟菩提心 入三摩地 合十方佛 傳一妙心 斯為第一

이 글은 최근 이수덕 박사가 <세계와 중생이 생긴 내력을 말하다>로 편역한 '수능엄경'에서 발췌했다.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응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JJUN Heating System Module

“ 쫄 ” 난방

최대 30% 절감 ↓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축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축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축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C ~ 50°C) 난방 가능

■ 설치장소 ■

보일러란 없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 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평창 : 010-6433-8612
 김천 : 010-9091-4583
 북광주 : 010-3641-0605
 여수 : 010-3612-7784

수원 : 010-5211-7260
 서산 : 010-7301-5854
 진주 : 010-3583-7139
 새창 : 010-6890-0365
 고성 : 010-4578-0961

남양주 : 010-9183-9729
 양산 : 010-6294-6126
 울산 : 010-4597-5577
 익산 : 010-6610-2337